

# 고치쵸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 남해에서 이름이 높은 성-고치쵸

고치쵸(高知城)는 성의 혼마루(本丸: 중심건물, 주성(主城), 혼마루(本丸)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외곽에 니노마루(二ノ丸)·산노마루(三ノ丸) 등을 배치하고, 대개의 성에는 깊은 해자가 둘러싸여 있다. -역주) 건축 군이 모두 현존하는, 에도(江戸)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일본 유일의 성곽이다. 원래 이 장소에는 남북조시대에 쌓여진 오타카사카쵸(大高坂城)가 있었고, 전국시대에는 초소가에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가 오코쵸(岡豊城)로 부터 옮겨와 축성에 임했다. 그러나 치수(治水)가 곤란하여 불과 3년 후에 모토치카(元親)는 우라도쵸(浦戸城)로 이동했다. 그 후 세키가하라전투(関ヶ原の戦い)의 공적으로 엔슈카케가와(遠州掛川)(현재의 시즈오카현-역주)에서 입국한 아마우치 카쓰토요(山内一豊)가 이 땅을 성의 지역으로 정하고, 케이쵸(慶長)6년(1601년) 가을부터 축성을 시작했다.

카쓰토요(一豊)는 축성가로 알려진 도도에치젠 노카미 야스유키(百々越前守安行)를 총 부교(奉行: 행정, 재판, 사무 등을 담당하는 무사의 직명-역주)로 임명하고, 이웃 마을에서 석재와 목재를 가져와 공사를 진척시켰지만 난공사가 많았다. 마지막에 남은 산노마루(三ノ丸)가 완성된 것은 10년 후, 2대 번주인(藩主: 에도시대 막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봉건사회체제에서 영주-역주) '타다오시'가 치세를 행한 케이쵸(慶長)16년(1611년)이었다. 고후(享保)12년(1727년)에는 일부의 건물을 남기고 소실되어 즉시 복구에 나섰지만 재정난 등으로 텐슈카쿠(天守閣)가 부흥할 때까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그 후 메이지(明治)유신에 의해 폐성이 되어 혼마루(本丸)와 오테문(追手門: 주로 성의 입구문을 칭함-역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허물어졌고, 공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별명은 다카쵸(매가 날개를 퍼 있는 모습과 비슷해서鷹城)이라고 한다.



### 석통

비가 많은 도사(土佐: 고치현의 옛 지명-역주)인 만큼, 고치쵸(高知城)에 있어서 '아마지마이(雨仕舞い: 비가 새는 것을 막는 방법)'는 적으로부터의 방어 못지않게 중요했다. 성내(城内)에는 많은 수로가 마련되어 돌담으로부터 돌출한 석통(石樋)에서 배수되고 있다. 성내(城内)에서 16군데가 확인되고 있으며, 혼마루(本丸)의 석통(石樋)은 지금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산노마루(三ノ丸)에서 발굴된 수로와 석통(石樋)의 구조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 돌담

고치쵸(高知城)의 돌담은, 오우미(近江: 시가현의 옛 지명-역주)의 기술자 집단인 '아노우슈'(穴太衆)가 시공했다. 비가 많은 지방의 성질을 고려하여, 무너지기 어렵고 배수 능력도 높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 공법은 노주라즈미 野面積리 라고 한다) 길보기는 잡다하게 보이지만, 대단히 튼튼한 건축 방법이다. 한편 성내(城内)에서는 스키노단(杉ノ段: 삼목단)에 있는 돌담과 데쓰문(鐵門)에 있는 우치코미하기(打込ハキ: 두드려 박아 이음) 돌담이 특히 아름다우니 꼭 볼 만하다. 산노마루(三ノ丸)에서는 초소가에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가 이곳에 축성했을 무렵의 돌담이 발굴되어 볼 수 있게 되었다.

### 고치쵸의 볼만한 곳 안내



군사거점으로서 성의 성격을 나타내는 귀중한 유구(遺構)가 고치쵸(高知城)에는 많이 남아있다. 성내(城内)의 각 곳에서 직각으로 구부러진 돌담은 '오코야카리(横矢掛り)'라고 하며, 사각(死角)을 없애서 어디에서든지 화살을 적에게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담에 둘러싼, 삼각, 사각 또는 각양각색 모양의 '야자마(矢狭間: 화살구멍)'는 이곳에서 화살로 적을 내몰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요새인 천수(天守)에 설치된 '이시오토시(石落とし: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는 방어시설-역주)'와 철책으로 철거가 붙어 있어, 이것을 돌파해서 천수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어려웠다.

### 방어



고치쵸(高知城)를 둘러싼 해자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1/3도 안 된다. 또 해자의 폭도 현재는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의 안쪽에 있던 도루이(土塁(토루)): 흙으로 쌓은 부루-역주)도 철거되는 등 번정기(藩政期)와는 형태가 크게 변했다. 옛날에는 성의 서북으로 흐르는 에노쿠치강(江ノ口川)에서 물을 끌어들어 해자를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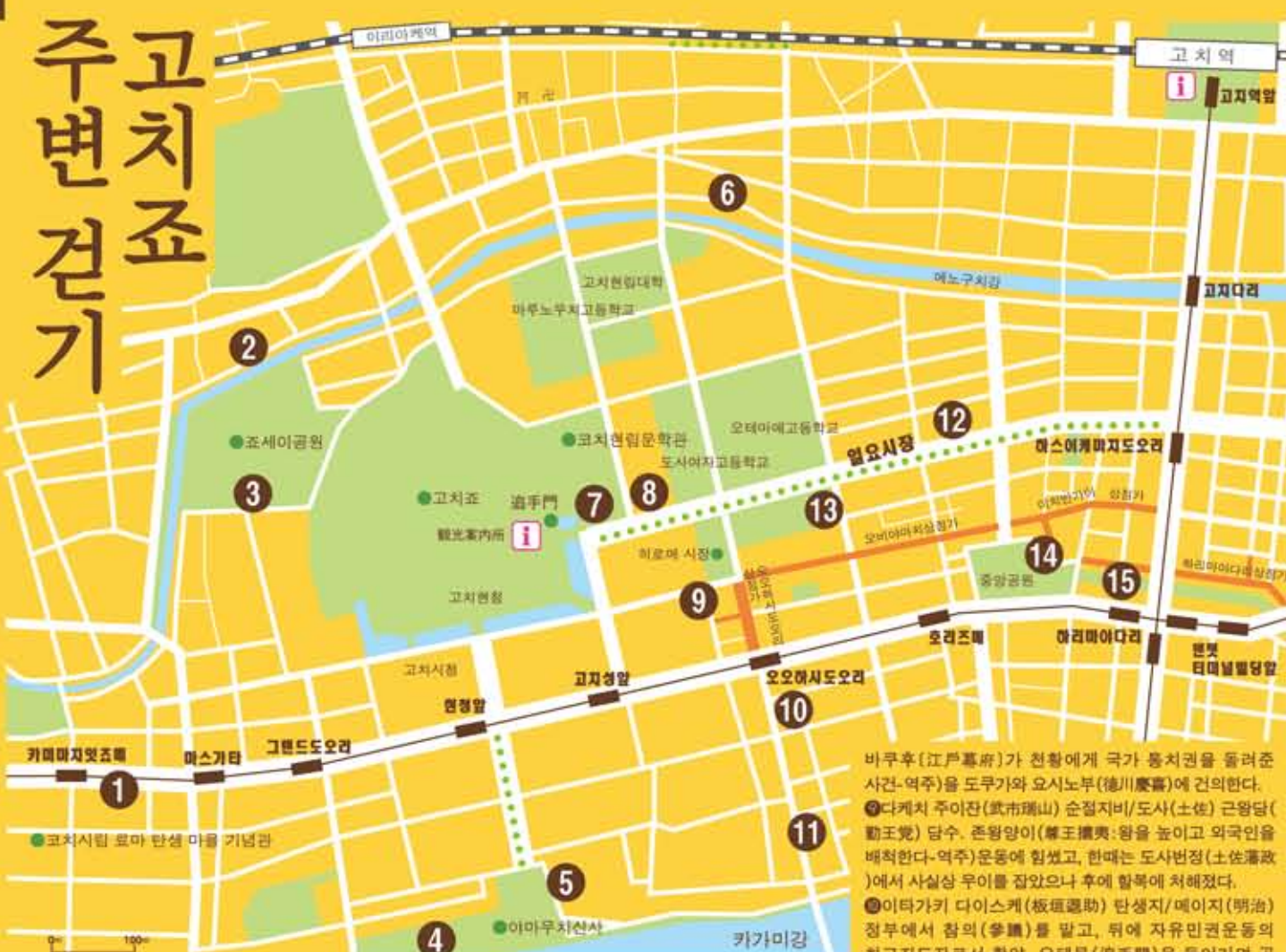
### 해자



## 고치쵸약연보

- 케이쵸(慶長)6년 [1601년] 아마우치 가쓰토요(山内一豊)가 도사국(土佐国)에 입국해 우라도쵸(浦戸城)에 거성(居城), 오타카사카야마(大高坂山)에 고치쵸(高知城) 축성 시작.
- 케이쵸(慶長)8년 [1603년] 혼마루(本丸)와 니노마루(二ノ丸)의 돌담공사 완성. 8월 21일 아마우치 가쓰토요(山内一豊)가 입성한다. 오타카사카야마(大高坂山)의 지명을 '고치야마(河中山)'로 바꿈.
- 케이쵸(慶長)15년 [1610년] 고치야마(河中山)를 고치야마(高智山)로 한자만 바꿈.
- 케이쵸(慶長)16년 [1611년] 산노마루(三ノ丸)가 완성되어 거의 모든 성곽이 정비됨.
- 고후(享保)12년 [1727년] 성 시가에서 큰 불로 오테문(追手門)을 남기고 텐슈카쿠(天守閣)를 비롯하여 성곽의 대부분이 소실됨.
- 고후(享保)14년 [1729년] 후카오 타테야키(深尾帯刀)를 건축공사 부교(奉行: 행정, 재판, 사무 등을 담당하는 무사의 직명-역주)로 임명하여 성곽재건 착공.
- 간엔(寛文)2년 [1749년] 텐슈카쿠(天守閣)를 비롯하여 망루, 성문 등이 완성. 현재의 텐슈카쿠(天守閣)는 이 때 지어진 것.
- 호레키(宝暦)3년 [1753년] 재건 이래 25년이 지나서 거의 모든 성곽이 정비됨.
- 고카(弘化)3년 [1846년] 텐슈카쿠(天守閣)가 수리됨.
- 메이지(明治)7년 [1874년] 고치(高知)공원으로 일반 개방됨.
- 쇼와(昭和)9년 [1934년] 국보로 지정. (쇼와(昭和)25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의해 중요 문화재가 된다)
- 쇼와(昭和)23년 [1948년] 천수를 비롯해 각 건물 수리 시작.
- 쇼와(昭和)34년 [1959년] 수복공사 완성. 사적(史跡)으로 지정.
- 헤세(平成)13년 [2001년] 축성400년제 개최.
- 헤세(平成)22년 [2010년] 산노마루(三ノ丸) 돌담수복 공사 완성.

## 스탬프



- 1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탄생지/해원대(海援隊)대장. 삿쵸(薩州)동명 체결이나 '선중팔척(輪中八策)'의 기초(起事) 등을 통해 대정봉환(大政奉還)실현에 진력. 부근에 료마(龍馬)가 태어난 거리 기념관이 있다.
- 2 테라다 트라히코(寺田實彦) 기념관/물리학자, 수필가로서 저명. 나쓰에 소세키와 친분이 있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산시로(三四郎)'에서 등장인물의 모델로 여겨진다.
- 3 처도칸(致道館(지도관문)) / 분큐(文久)2년(1862)에 창설된 학교(藩校(반교)): 에도시대에 각 '번'에서 무사의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로, 그 석산총업(積善興業)에 힘쓰고, 도사번(土佐藩) 경제의 문명이 남아있다.
- 4 도사 아마우치(土佐山内)가보 자료관/도사번(土佐藩)에서 전해 내려 온 고문서, 미술공예품, 역대 번주(藩主)의 유품 등을 소장 전시하는 박물관.
- 5 구 아마우치가(山内家) 시모야시키(下屋敷: 별저) 나가야(扨屋: 에도시대의 삼급무사들은 '나가야'를 지어 가신이나 하인들을 살게 함-역주)/아마우치 요도(山内容堂)의 별저 경호를 맡은 무사의 숙소이며,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 6 오카와스지(大川蔵) 부케야시키(武家屋敷: 무사저택-역주) 자료관/성시(城下)에서 유일하게 남은 부케야시키(武家屋敷). 서원조(書院造: 선종(禪宗)의 서원 양식)인 관원, 무사의 주택에 채택된 것으로 현재의 일본식 주택은 거의 이 양식(안-역주)의 안채와 나가야문(長門門)이 있다.
- 7 노나카 켄잔(野中兼山) 저택자취 / 번정초기(藩政初期)의 가신 장로로 향만정비나 관개, 삼림정비 등 석산총업(積善興業)에 힘쓰고, 도사번(土佐藩) 경제의 초석을 쌓았으나, 후에 실각한다.
- 8 아마우치 요도(山内容堂) 탄생지 / 15대 도사번주(土佐藩主)로, 바쿠후 말기 4대 현후(현명한 영주)의 한사람으로 중앙정계에서 활약. 공무(公務: 조정과 막부) 합체파였지만, 후에 료마(龍馬)나 고토 소지로(後藤象二郎)의 의견을 받아 대정봉환(大政奉還: 1867년 일본 에도





**8**

**텐슈카쿠(天守閣)**

외관 4층(내부 6층 3중) 높이 18.5m의 망루형 천수로, 창건 당시의 양식을 답습하여 1749년에 재건되었다. 팔각 지붕과 그 위의 카라하후(唐破風: 중앙 부분이 아치형이고, 양끝이 약간 치켜 올라간 곡선 모양으로 된 박공)·역주, 검은 옷으로 칠해진 난간이 특징적이다. 일층 북동 모서리에는 현존하는 것으로는 전국 유일의 철책(‘시노비기에서’ (忍び返し) 적을 막기 때문에 특색한 창살(槍矢)을 박아 두었다·역주)도 있다.

# 本丸

**○ 혼마루의 순로**

**직선루트**

8min  
오테문(鎗手門)~혼마루(本丸)까지 약 8분. 급경사 계단이 이어지지만, 가장 빨리 혼마루(本丸)에 도달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느린루트**

20min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에서 우메노단(梅ノ段·매화단), 산노마루(三ノ丸)를 경유. 그리 알려지지 않은 루트이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성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테문(鎗手門)~혼마루(本丸)까지 약 20분.



**9 일본 유일의 유구, 혼마루어전(本丸御殿)**

혼마루(本丸)에는 텐슈카쿠(天守閣), 혼마루어전(本丸御殿), 난도구라(納戸蔵:창고·역주), 복도문, 히가시타몬(東多間), 니시타몬(西多間) 쿠로가네문(黒鉄門) 등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현존 12성 안에서도 혼마루어전(本丸御殿)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고치쵸(高知城)만으로, 모두가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히가시타몬(東多間)은 무기고, 니시타몬(西多間)은 혼마루(本丸) 경호부사의 빈소, 난도구라(納戸蔵)는 번(藩)의 중요서류장, 쿠로가네문(黒鉄門)은 의식을 치를 때 번주(藩主)가 드나드는데 이용되었다. 어전 서원(書院)은 정전(正殿), 타마리노마(溜ノ間: 서원에 부속하는 방으로 다이묘(大名)들이 들어갔다·역주),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전(正殿)에는 한 층 높게 한 조단노마(上段ノ間: 마루를 높은 상단좌식, 주군과 가신이 대면하는 곳·역주)가 있고, 서쪽에는 무사카쿠시(武者隠: 무사가 숨어있던 방)가 있다. 란마(천장과 상인방 사이에 채광, 통풍, 장식용을 위해 격자와 부가 등의 판을 설치함)는 도사(土佐)의 거센 파도를 표현하고 있다. 창건 당시의 어전(御殿)은 금박을 입힌 맹장지 등 사치스럽게 꾸미었지만, 재건 시에 전체적으로 검소한 양식이 되었다고 한다.



**3**

**테쓰문(鉄門)자취와 메문(詰門)**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에서 오른쪽 돌층계를 오르면 우치코미하기(打込ハキ: 두드려 박아 이음)라 하는 수법으로 쌓여진 견고한 돌담이 눈에 띄는데, 이곳이 테쓰문(鉄門)자취이다. 당시는 대문에 다수의 소철판이 박혀있었고, 문 안에는 작은 마스가타(枳形: 네모진 빗자루·역주)가 마련되었던 중요한 방위 포인트이었다. 재건 시 다시 쌓여진 돌담에는 돌을 부수어 나온 쇠 자국도 남아있다. 테쓰문(鉄門)자취를 넘으면 우측 앞에 산노마루(三ノ丸), 우측위로 니노마루(二ノ丸), 좌측위로 혼마루(本丸)와 텐슈카쿠(天守閣)가 보이고, 바로 정면에는 몇 단의 돌층계 너머로 검은 칠을 한 쓰메문(詰門)이 보인다. 적군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정면의 쓰메문(詰門)쪽으로 유도되어, 돌층계를 오르지만 최후 세 방면에서 화살과 총탄에 휘말리게 된다.



**1**

**오테문(鎗手門)**

돌담 위에 와타리망루(渡櫓: 성루의 사이를 잇도록 세워진 것·역주)를 얹은 누문(櫓門: 성루 아래에 있는 문·역주)으로, 성의 정면과 어울리게 당당한 자태를 뽐낸다. 문전은 마스가타(枳形: 네모진 빗자루·역주)로 되어 있고, 방어 시에는 돌담 위의 틈새나 문 위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문의 2층에는 미시오토시(石落とし: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는 방어시설·역주)도 있어, 적군 바로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거나 창(槍)으로 찌를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전은 성내(城内)에서 거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공사 때에 남겨진 '고나'·'구' 등의 각인도 확인할 수 있다.

**2**

**오테문(鎗手門)에서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까지**

오테문(鎗手門)을 빠져나가 왼쪽 돌층계를 끝까지 오르면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에 이른다. 돌층계는 오르기 어려우나 내리기 쉽도록 폭이 고안되어 있다. 현재 두껍게 덮여져 있는 우물은 양질의 음모수를 길어 수 있어, 번주(藩主)가 거주하는 니노마루(二ノ丸) 어전까지 매일 10시, 12시, 16시에 세 번 울려졌다고 한다. 번주(藩主)가 귀국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일찍이 여기까지 송영하러 나왔다.



**6**

**우메노단(梅ノ段)**

스기노단(杉ノ段·삼목단)에서 왼쪽으로 가면, 예전 마장(馬場)이 매화정원으로 되어있는 우메노단(梅ノ段: 매화단)이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오다이도코로(부엌)저택' 자취와 성 시가의 새싹신이며 제때에 한하여 서민의 참배가 허용된 하치만구(八幡宮: 오진천황(応神天皇)을 주신(主神)으로 모신 신사·역주)자취(現고치하치만구)에 소 사당이 있다. 축성전부터 성내(城内)에는 하치만구(八幡宮)만 있는데, 축성후에 스와다이묘진(諏訪大明神), 이쓰쿠시마요진(嚴島明神)이 옮겨와서, 성내(城内) 3대 신사라고 일컬어진다.



**4**

**산노마루(三ノ丸)**

예전에는 산노마루어전(三ノ丸御殿)이 있어, 연중 행사나 의식을 행하였다. 쇼소가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에 의한 축성 당시의 돌담이 발굴되어, 그 일부의 유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7**

**혼마루에 이르는 길(本丸へ)**

혼마루(本丸)와 니노마루(二ノ丸)를 연결하는 누문(櫓門: 성루 아래에 있는 문·역주)으로, 번정(藩政) 시대에는 '하시로카(橋廊下: 다리복도)'라고 불렀다. 문 안으로 침입한 적군이 용이하게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입구와 출구의 문 위치가 엇갈려 설치되어 있다. 일층은 농성용 소금을 저장하는 열장이 있고, 이층은 가신, 중신 등의 대기소로 이용했다. 현재의 호칭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벽에는 숨긴 총안(銃眼)이 설치되어 있다. 혼마루(本丸)의 입구에는 복도문이 있어, 여기를 빠져 나가면 혼마루(本丸)에 이른다.

**5**

**니노마루(二ノ丸)**

번주(藩主)가 생활하는 니노마루어전(二ノ丸御殿)이 있었다. 북동쪽에는 가구성루나 다실성루 등이 있어, 이들 성루는 그 이름이 나타내듯 세간이나 도구류를 수납했다. 서쪽 끝에는 3층 건물인 이누이성루(乾櫓)가 있었는데, 마치 소천수(小天守) 같았다고 일컬어진다.